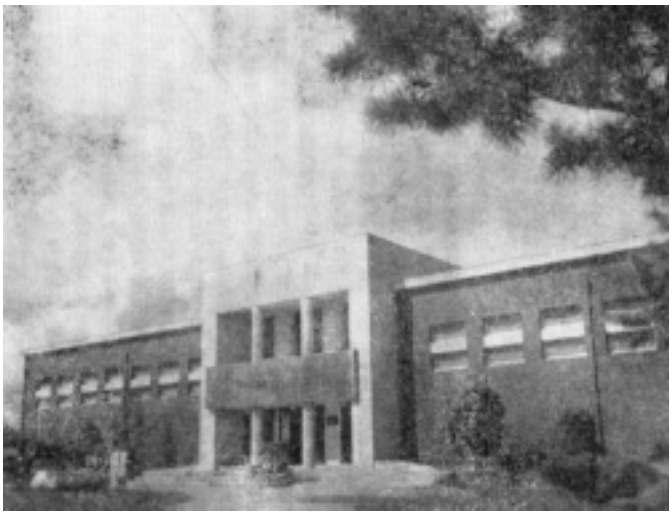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기념관소개(紀念舘紹介)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기념관(紀念舘)은 군사(軍事)박물관(博物舘)이다.

李康七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기념관(紀念舘)은 군사박물관(軍事博物舘)이다. 1954년 7월 이래(以來) 육군(陸軍) 전(全) 장교(將校)가 갹출(醵出)한 성금(誠金)(구화(舊貨) 3,700만 환(萬圜)을 기금(基金)으로 1956년 5월에 기공(起工)하여 동년(同年) 10월에 개관(開舘)하였다. 단층(單層) 연와(煉瓦) 건물(建物)로 중앙(中央)에 커다란 홀(Hall)이 있고 여기를 중심(中心)해서 방사상(放射狀)으로 크기와 모양이 동일(同一)한 제일(第一), 제이(第二), 제삼실(第三室)이 있으며 이 기념관(紀念舘)의 총건평(總建坪)은 280평(坪)이다.
건립(建立)후(後) 수년(數年) 동안은 초창기(初創期)의 단계(段階)에 머물러 있었으나 수장(收藏)품(品)의 수집(蒐集)에 있어서도 6·25 당시(當時)에 사용(使用)한 적(敵)의 장비(裝備), 육군(陸軍) 각급(各級) 부대(部隊)의 군기(軍旗)와, 싸우는 화랑도(花郞圖), 조국(祖國) 통일지도(統一之圖), 영국근위병복(英國近衛兵服)과 같은 육사졸업생(陸士卒業生) 및 우방각국(友邦各國)의 기증품(寄贈品) 정도(程度)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활동(活動)도 저조(低調)한 상태(狀態)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961년(年) 10월(月) 이후(以後)에는 관계관(關係官) 및 실무자(實務者)의 노력(努力)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目標)를 설정(設定)하고 적극적(積極的)인 활동(活動)을 전개(展開)함으로써 오늘의 면모(面貌)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一. 고대군사유물(古代軍事遺物)의 수집(蒐集)

본(本) 기념관(紀念舘)은 그 동안 활동대상(活動對象)을 주(主)로 창군(創軍) 이후(以後)의 것에만 두고 있는데 이를 확대(擴大)하여 고대(古代)의 군사유물(軍事遺物)에 까지

미치게 하였다. 우리 민족(民族)의 군사활동(軍事活動)은 1946년(年) 국군창설(國軍創設)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고 유구(悠久)한 옛날부터 삼국(三國), 통일신라(統一新羅), 고려(高麗), 이조시대(李朝時代)를 거쳐 금일(今日)에 이른 것이다. 더욱이 우리 한반도(韓半島)가 아세아(亞細亞) 대륙(大陸)에서 지리적(地理的)으로 교량적(橋梁的) 위치(位置)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북(北)으로부터는 한민족(漢民族)과 이에 대립(對立)하는 북방새(北方塞)외(外) 민족(民族)의 교체적(交替的)인 침입(侵入), 그리고 남(南)으로부터는 왜인(倭人)의 침구(侵寇)를 끊임없이 받았다. 이와 같은 외적(外敵)의 침입(侵入)은 우리 민족(民族)의 발전(發展)을 가로막는 커다란 불행(不幸)이였음은 물론(勿論)이다. 그런데도 빈번(頻繁)히 반복(反覆)되는 전쟁(戰爭)에 대하여 한번도 과학적(科學的)이며 종합적(綜合的)인 입장(立場)에서 사실(事實)을 면밀(綿密)히 검토(檢討)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론(結論)(교훈(敎訓))을 후일(後日)에 거울삼으려는 노력(努力)은 거의 없었다.
전쟁(戰爭)은 이기거나 반드시 그렇게 될 이유(理由)와 연고(緣故)가 각(各) 방면(方面)에서 충분(充分)히 있기 마련이다. 전쟁(戰爭)에는 정치정세(政治情勢), 국제관계(國際關係), 전략(戰略), 전술(戰術)등 여러 가지 면(面)이 고려(考慮)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무기(武器)가 승패(勝敗)를 결정(決定)짓는데 절대적(絶對的)인 관건(關鍵)이 됨은 고금(古今)이라 하여 다를 리(理)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실정(實情)은 안타깝게도 임진왜란(壬辰倭亂) 병인양요(丙寅洋擾)와 같은 대전쟁(大戰爭)에 있어서 조차 우리가 사용(使用)한 무기(武器)와 적측(敵側)이 사용(使用)한 그것을 거의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정도(程度)가 아니고 알리고 노력(努力)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당시에 사용(使用)된 유물(遺物)이 오늘날에까지 유존(遺存)하는 여부(與否)에 마저 전(全)혀 무관심(無關心)하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실물(實物)이 눈앞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 당시의 것이라고 식별(識別)할만한 안식(眼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일(今日)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써 찾으면 궁시(弓矢), 도검(刀劍), 경포화기(鏡砲火器), 갑주(甲冑), 군기(軍旗), 전쟁화(戰爭畵)등 관계유물(關係遺物)로 공사(公私)간(間)에 전존(傳存)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무기류(武器類)를 비롯한 고대군사유물(古代軍事遺物)을 수집(蒐集)하고 연구(硏究)함으로써 민족(民族)의 운명(運命)이 좌우(左右)되었던 과거(過去)의 대전란(大戰亂)에 관(關)해서 그 승패(勝敗)를 막연(漠然)히 정치정세(政治情勢)의 불안(不安)이나 외교정책(外交政策)의 졸렬(拙劣) 내지(乃至)는 기개(幾個)인(人)의 초인적(超人的) 활동(活動)으로서만 설명(說明)하려하지 말고 지형지물(地形地物)의 이용(利用)을 포함(包含)한 전략(前略), 전술(戰術), 장비(裝備)차이(差異)등 실증적(實證的)이고 과학적(科學的)인 면(面)에서 파악(把握)비판(批判)하여야 할 줄로 믿는다.

二. 6・25동란(動亂) 전후(前後)의 군사유물(軍事遺物)과 순국장병(殉國將兵)의 유품수집(遺品蒐集)

현대(現代)에서 생(生)을 향유(享有)하는 우리는 육군창설(陸軍創設) 이후(以後)의 군사활동(軍事活動)과 6・25동란(動亂)을 전후(前後)한 전투경과(戰鬪經過)를 후세인(後世人)에게 올바르게 전달(傳達)해야 할 역사적(歷史的)인 의무(義務)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본관(本舘)은 군사편찬(軍史編纂)에 있어서 직접적(直接的)인 책임(責任)은 지지 않지만 후세(後世)에서 현대(現代)의 사실(事實)을 규명(糾明)하고 이에 수반(隨伴)하는 제반공과(諸般功過)를 논의(論議)하는데 필요(必要)한 자료(資料)(군사유물(軍事遺物))를

수집보관(蒐集保管)해두어야 할 절실(切實)한 임무(任務)를 짊어지고 있다. 휴전(休戰)된지 불과(不過) 10여년(餘年)인 금일(今日)에 있어서 조차 국민일반(國民一般)은 고사(姑捨)하고 대부분(大部分)의 군인(軍人)마저 동란당시(動亂當時)에 사용(使用)된 피아(彼我)의 무기(武器)와 그 우열(優劣), 그리고 그것이 전투상(戰鬪上)에 미친 영향(影響) 등에 대(對)해서 거의 무관심(無關心)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동란전후(動亂前後)에 순국(殉國)한 용사(勇士)(선열(先烈))들의 공(功)을 높이 치하(致賀)하고 그 유방(遺芳)을 백세(百世)에 전(傳)하며 후인(後人)들로 하여금 민족(民族)과 국가(國家)를 위하여 발분용약(發奮勇躍)케 하는데 가장 유효(有效)한 조치(措置)는 이 분들의 유품(遺品)을 수집(蒐集)전시(展示)하는 일 일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시간(時間)이 덜 경과(經過)하여 인멸(湮滅)이 적은 시기(時期)에 군내부(軍內部)와 군(軍)에 관계(關係)한 인사유족(人士遺族)의 협조(協助)를 얻어서 하루 속히 그 활동(活動)을 적극화(積極化)하려는 것이다.

三. 군사유물(軍事遺物)에 대(對)한 조사(調査)와 연구(硏究)의 철저(徹底)

박물관(博物舘) 사업(事業)은 실물(實物)로서 관객(觀客)의 시각(視覺)에 직접(直接)호소(呼訴)하기 때문에 그 효능(效能)이 크지만 그 반면(反面) 한번 잘못 전달(傳達)된 지식(知識)은 정정(訂正)이 거의 불가능(不可能)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열품(陳列品)의 선정(選定)과 그 전시(展示) 및 해설(解說)에 있어서 극(極)히 신중(愼重)을 기(期)하여야 한다. 더욱이 본관(本舘)과 같이 육사(陸士) 자체(自體)가 군(軍)에서 첫째가는 관광(觀光)코스에 들어있는데다가 육사중(陸士中)에서도 제일(第一)가는 관광대상처(觀光對象處)로 선정(選定)되어 있어서 수(數)많은 내방객(來訪客) 국민학교생(國民學校生)에서부터 관민(官民)의 고위층(高位層) 및 외국인사(外國人士)에 이르기까지 부절(不絶)한 곳에서는 섣불리 불확실(不確實)한 물품(物品)을 전시(展示)하거나 적확(的確)치 않는 해설(解說)을 운위(云謂)함은 군(軍)과 육사(陸士)의 명예(名譽) 내지(乃至) 민족(民族)의 체면(體面)을 위해서 심(甚)히 위험(危險)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아울러 고려(考慮)해야 할바는 현재(現在) 공사립(公私立)을 막론(莫論)하고 군사유물(軍事遺物)을 전문(專問)으로 다루는 박물관(博物舘)이 전무(全無)한 실정(實情)이어서 본관(本舘)은 실(實)로 우리 군(軍)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國家的) 견지(見地)에서도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군사전문(軍事專問)의 박물관(博物舘)이란 점(點)이다. 국립박물관(國立博物舘)이나 서울대학교박물관(서울大學校博物舘) 고려대학교박물관(高麗大學校博物舘)등에 군사유물(軍事遺物)의 수장(收藏)이 없는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군사유물(軍事遺物)은 어디까지나 고고박물관(考古博物舘) 민속박물관(民俗博物舘) 내지(乃至) 미술박물관(美術博物舘)이란 각기(各其) 박물관(博物舘) 특유(特有)(전문(專問))의 본(本)임무(任務)에서는 거의 무시(無視)되어도 좋은 부속물시(附屬物視) 되어도 무방(無妨)한 위치(位置)에 있는 듯하다.
따라서 한국(韓國)의 군사유물(軍事遺物)에 대(對)한 조사(調査)와 연구(硏究)는 현재(現在) 군사박물관(軍事博物舘)으로서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하다는 본(本) 기념관(紀念舘)에서 반드시 수행(遂行)하여야할 의무(義務)인 것이다. 즉 앞에서 지적(指摘)한 바, 과거(過去) 우리 민족(民族)의 군사상(軍事上)이 활동(活動)에 대한 조사(調査)와 연구(硏究)가 바로 여기를 중심(中心)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소한(最小限) 궁시(弓矢), 도검

(刀劍), 화기(火器), 전쟁화(戰爭畵)등(等) 유물(遺物)의 파악(把握)과 연구(硏究)는 기필(期必)코 이곳에서 완수(完遂)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본관(本舘)으로서는 과거(過去)의 군사유물(軍事遺物)을 수다(數多)히 수집(蒐集)하여 이를 진열(陣烈)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본관(本舘)에 수장(收藏)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소속(所屬)은 어디에 있든) 전국적(全國的)인 유존(遺存)실태(實態)를—외국(外國)에 존재(存在)하는 예(例)도 있다—항시(恒時) 종합적(綜合的)으로 파악(把握)하고 있어야 한다. 동시(同時)에 왕조실록(王朝實錄) 융원필비(戎垣必備)등 과거(過去)의 문헌(文獻)에 나타나는 군사(軍事), 유물(遺物) 관계(關係)의 기록(記錄)을 광범(廣範)하게 발화(拔華) 촬영(撮影)하여 이를 체계화(體系化)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問題)와 관련(關聯)하여 우리에게는 급(急)히 반성(反省)해야 할 하나의 자극적(刺戟的)인 사실(事實)이있다. —그것은 일제(日帝) 40년(年)동안에 일인(日人)들은 우리의 민족사(民族史)를 고의(故意)로 더럽혔는 바 군사상(軍史上)에 있어서도 그러한 왜곡(歪曲)이 없을 리(理) 없다. 임란(壬亂)에 있어서 왜군(倭軍)의 진격면(進擊面)을 강조(强調)함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의병활동(義兵活動)을 과도(過度)하게 무시(無視)하며 부산진(釜山鎭) 순절도(殉節圖)를 함락(陷落圖)라고 부른 것 등은 그 좋은 예(例)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왜곡(歪曲)을 바로 잡음은 고사(姑事)하고 지금에 있어서 조차 우리는 군사유물(軍事遺物)에 관(關)한 연구(硏究)가 전무(全無)한데 반(反)하여 일본(日本)에서는 「화포(火砲)의 기원(起源)과 그 유물(遺物)」(1962년(年)) 「고총물어(古銃物語)-설화(說話)」(대총약보(大塚藥報) 1961～1962년(年)) 및 각종(各種) 사학(史學) 잡지(雜誌)등에서 우리의 고대무기(古代武器)에 대하여 한국(韓國)에서는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높은 지각(知覺)을 발표(發表)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그들은 임란(壬亂)에서 우리를 짓밟았고 강화조약(江華條約) 이후(以後) 한국(韓國)을 식민지화(植民地化)하였건만 지피지기(知彼知己)하여야 한다는 입장(立場)에서 우리의 옛것을 열심(熱心)히 수집(蒐集) 연구(硏究)하고 있는 것이다. 독립(獨立)을 되찾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과거(過去) 우리의 군사유물(軍事遺物)에 대한 지식(知識)을 일인(日人)에게서 배워야 한다 함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민족(民族)의 비극(悲劇)이며 비정상적(非正常的)인 현상(現狀)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근자(近者)에 이르러 본관(本舘)을 찾는 일인(日人)의 내방(來訪)자(者)가 점증(漸增)하는 현실(現實)에 있어서는 한층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다.

본관(本舘)은 위와 같이 중요(重要)한 임무(任務) 즉 군사유물(軍事遺物)의 정리(整理)와 연구(硏究)에 주력(注力)함으로써 군사유물(軍事遺物)을 통(通)하여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올바른 자세(姿勢)와 전통(傳統)을 되찾고 이를 널리 내외(內外)에 선양(宣揚)하여 민족(民族)의 긍지(矜持)를 살리고 기리 후세(後世)에 전(傳)하고자 한다. 요(要)컨데 국립박물관(國立博物舘)이 전국(全國)의 고고미술학상(考古美術學上)이 모든 유물(遺物)을 항시(恒時) 파악(把握)하고 꾸준히 연구(硏究)하여 민족(民族)과 국가(國家)의 요청(要請)에 부응(符應)하듯이 본기념관(本紀念舘)도 우리의 군사상(軍事上)의 유물(遺物)에 한(限)해서만은 국내외(國內外)에서 지도적(指導的)인 지위(地位)를 보지(保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당간지주(幢竿支柱)

당간(幢竿) 즉(卽) 「기(旗)대」를 직립(直立)하여 세우기 위하여 지상(地上)에 세워진 이본(二本)의 지주(支柱)이다. 신라통일시대(新羅統一時代)에 현저(顯著)히 발달(發達)하였다.

화강암(花崗巖)으로 만들어지고 길이가 2.5~3m, 5m 단면장방형(斷面長房形)의 석주(石柱)를 0.5m~1.0m의 간격(間隔)을 가지고 이본립(二本立)이며 상대(相對)하는 면(面)은 수직(垂直)이고 보통(普通) 내면(內面) 2개소(個所)에 당간(幢竿)을 긴박(緊縛)하는 횡목(橫木)을 통(通)하기 위한 구멍이 있다. 상단(上端)에도 같은 목적(目的)을 위한 구(溝)가 있다. 이본(二本)의 지주하(支柱下)에 공통(共通)의 수태(受台)가 있고 그 구멍에 넣고 세운다. 수태(受台)에는 정(精), 조(粗), 각종(各種)이 잇고 주위(周圍)에 격협간(格狹間)을 조각(彫刻)한 것이 있다. 경주사천왕사(慶州四天王寺), 분황사(芬黃寺), 불국사(佛國寺), 기타(其他)에 모두 1기(基)가 있다 전라북도(全羅北道) 익산(益山) 미륵사(彌勒寺)에는 약(約) 90m 떨어져서 2기(基)가 있다.

본관(本舘)은 1962년(年) 이후(以後) 상술(上述)한 바 목표(目標)의 달성(達成)을 위하여 노력(努力)하였는데 그 중(中)에서 중요(重要)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事項)을 여기에 소개(紹介)하여 참고(參考)에 공(供)하고자 한다. 6·25동란(動亂) 전후(前後)의 군사유물(軍事遺物) 및 유품(遺品)의 수집(蒐集)에 있어서 현재(現在) 전군(全軍)의 각종(各種) 부대기(部隊旗)를 비롯하여 수백 점(數百點)에 달(達)하는 사변(事變) 당시에 로획(鹵獲)한 적장비(敵裝備)를 수장(收藏)하고 이 중(中)에는 북괴(北傀)나 중공(中共), 소련(蘇聯)에서 제작(製作)한 것 외(外)에 독일(獨逸) 일본(日本)등지에서 만든 각종(各種)이 있어서 무기연구(武器硏究)에 좋은 참고(參考)가 될뿐더러 적(敵)의 침략(侵略)을 몸소 겪지 않았던 청소년(靑少年)이나 해외(海外)에서 돌아온 교포(僑胞) 내지(乃至) 외국인사(外國人士)에게 방공사상(防共思想)을 고취(鼓吹)하는데 커다란 역할(役割)을 하고 있다. 1963년(年) 8월(月)에는 1949년(年) 11월(月)에 지리산지구(智異山地區) 공비토벌(共匪討伐)에서 순국(殉國)한 고(故) 백인기(白仁基)장군(將軍)의 유품(遺品) 5점(點)을 수장(收藏)하였다. 이는 미망인(未亡人) 정여사(鄭女史)가 보내온 것인바 지휘봉출정유시(指揮棒出征遺詩)등을 통(通)하여 당시 우리 국군(國軍)의 장비(裝備)하던지 사기(士氣)를 짐작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관(關)하여 상세(詳細)한 것은 「추성(雛星)」지(誌) 제(第)11집(輯)을 참고(參考)하기 바람)

다음 고대군사유물(古代軍事遺物)의 수집(蒐集)에 있어서는 원래(元來) 유존(遺存)하는 군사유물(軍事遺物)이 풍(豐)4년(年) 명홍이포(銘紅夷砲)등을 모으는데 그치고 그 활동(活動)이 별(別)달리 활발(活潑)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립박물관(國立博物舘)과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민족문화(民族文化)의 발전(發展)을 앙양(昂揚)시키고 우리 군(軍)과 육사(陸士)를 아껴 주는 성의(誠意)에서 적극적(積極的)으로 후원(後援)하여준 결과(結果) 61년도(年度)부터 시작하여 누계(累計) 88종(種) 139점(點)을 대여(貸與)받아 본관(本舘)에 진열(陣烈)할 수 있었다. 이 대여(貸與)로 64년(年) 11월(月) 현재(現在)로 국립박물관(國立博物舘)에서는 동일품(同一品)이 2점(點)이상(以上)있는 경우는 그 중(中) 1점(點)을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는 창덕궁(昌德宮) 인정전(仁政殿) 회랑(廻廊)에 이미 공개(公開)한 진열품(陳列品) 외(外)에는 모두 본관(本舘)으로 옮겨

올 수 있어서 전체(全體) 총수(總數)의 약(約) 50%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중(中)에는 임란(壬亂) 전년(前年)(1591)의 소총통(小銃筒) 임란(壬亂) 당시에 사용(使用)되었으리라고 믿어지는 대장군포(大將軍砲), 호준포(虎蹲砲), 승자총통(勝字銃筒)과 임란(壬亂) 이후(以後) 불원(不遠)한 시기(時期)의 것으로 보여지는 천자총통(天字銃筒) 황자총통(黃字銃筒) 불랑기(佛狼機)(포도아(葡萄牙)) 포(砲)등 중요(重要) 화기류(火器類)와 선희궁이씨(宣禧宮李氏)(사도세자(思悼世子)의 생모(生母))의 패월도(佩月刀) 및 각종(各種) 인검(寅劍)등 실(實)로 진귀(珍貴)한 유물(遺物)이 불소(不少)히 있다.

이와 같이 고대(古代) 무기류(武器類)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느 정도(程度) 체계(體系)를 세워서 대규모(大規模)로 공개(公開) 전시(展示)하였음은 그 의의(意義)가 큰 바이며 육사(陸士)를 위시한 각급(各級) 학교(學校)의 교육(敎育)과 외인(外人)에 대한 민족(民族) 긍지(矜持)의 앙양(昂揚)에 적지 않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關聯)하여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고 자부(自負)하는 성과(成果)는 부산진(釜山鎭) 및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의 이봉(移奉)이다. 이는 1963년(年) 1월(月)에 원수장지(元收藏地) 동래안락서원(東萊安樂書院)으로부터 기증(寄贈)받은 것인데 그(충절(忠節))내용(內容), 제작유래(製作由來), 가치(價値), 이봉의의(移奉意義)등에 대해서는 1963년(年) 9월(月)에 국가보물(國家寶物) 제391호(第三九一號) 제392호(第三九二號)로 지정(指定)됨을 계기(契機)로 도하(都下) 각(各) 신문(新聞)에 널리 소개(紹介)되어 어느 정도(程度) 이미 세인(世人)에게 알려진 바 있고 또 동년(同年) 5, 6호(號)의 「국방(國防)」지(誌)에 순절도(殉節圖)와 민족정기(民族正氣)란 제목(題目)으로 비교적(比較的) 상세(詳細)히 논술(論述)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省略)키로 한다.

어떻든 임란(壬亂) 서전(緖戰)에 있었던 우리 겨레의 빛나는 저항(抵抗)을 천명(闡明)하고 일인(日人)에 의(依)하여 고의(故意)로 왜곡(歪曲)된 우리 민족사(民族史)의 일면(一面)을 바로 잡았으며 더욱이 본관(本館)으로서는 국가보물(國家寶物)을 2점(點)이나 수장(收藏)할 수 있었다는 점(點)에서 크게 기뻐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군사유물(軍事遺物)에 대한 조사(調査)와 연구(硏究)에 있어서는 일시(一時)에 광범(廣範)한 군사유물(軍事遺物) 전반(全般)을 대상(對象)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므로 무기중(武器中)에서도 우리 근세(近世) 전란사(戰亂史)에서 가장 핵심적(核心的)인 존재(存在)였다고 믿어지는 화기류(火器類)의 연구(硏究)에 주력(注力)하였다. 그리하여 국립박물관(國立博物舘)을 비롯한 서울지구(地區)와 영남지방(嶺南地方)에서도 「신기비화(神器秘話)」(선조조(宣祖朝)), 「융원필비(戎垣必備)」(순조조(純祖朝)), 「신전자소방(神傳煮焰方)」(숙종조(肅宗朝)등 관계(關係) 기본서(基本書)의 수집검토(蒐集檢討)와 「왕조실록(王朝實錄)」에서의 관계기사(關係記事)의 발췌(拔萃)를 를 열심(熱心)히 진행(進行)하고 있다. 그리하여 64년(年) 8월(月) 이후(以後)에는 조략(粗略)하나마 화기(火器) 발달(發達)에 관(關)한 논고(論稿)를 학술지상(學術紙上)에 단계적(段階的)으로 발표(發表)하기에 이르렀다.(「역사학보(歷史學報)」 제24집(第二四輯) 참조(參照))

고대군사유물(古代軍事遺物)의 조사(調査)와 수집(蒐集)의 노력(努力)이 종합적(綜合的)으로 집결(集結)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금년(今年) 3월(月) 11일(日)부터 31일(日)에 걸친 「고대무기특별전시(古代武器特別展示)」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본교(本校)의 졸업식(卒業式)을 계기(契機)로 이루어진 한국(韓國) 최초(最初)의 행사(行事)인데 경향(京鄕) 각지(各地)의 관계기관(關係機關)과 학계(學界)의 자발적(自發的)인 협조(協助)로 화기(火器)류(類) 90점(點) 도검(刀劍) 22점(點) 궁시(弓矢) 11점(點) 군복(軍服) 21점

(點) 군기(軍旗) 4점(點) 군화(軍畵) 37점(點) 기타(其他) 22점(點) 계(計) 207점(點)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었다. 전국(全國)의 것이 완전(完全)히 모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韓國)에 현존(現存)하는 군사유물(軍事遺物)의 대략적(大略的)인 실황(實況)이라던지 전체(全體)를 통관(洞觀)하여 얻어지는 우리 군사유물(軍事遺物)의 특징(特徵), 앞으로의 수집전망(蒐集展望)과 연구(硏究), 방향(方向)등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전시품 중(展示品中)에는 임란(壬亂) 이전(以前)에 사용(使用)한 화기류(火器類)와 갑주(甲冑)(전투복(戰鬪服))외(外)의 군인(軍人)의 평복(平服)인 융복(戎服) 천익(天翼) 그리고 조총(鳥銃) 장검(長劍) 및 전함도(戰艦圖) 군영기(軍營旗) 진성(鎭城)등이 출품(出品)되어서 많은 주목(注目)을 끌었다.

대통령(大統領), 국회의장(國會議長)을 비롯한 정부(政府) 및 군(軍)의 고위층(高位層), 그리고 학술원장(學術院長), 문화재위원장(文化財委員長) 국립박물관장(國立博物館長)을 필두(筆頭)로 각대학사학과(各大學史學科)와 각급학교(各級學校)의 집단관람(集團觀覽)이 부절(不絶)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各) 신문사(新聞社)등 언론기관(言論機關)에서도 적극적(積極的)으로 성원(聲援)하여 주어서 약(約) 3만 명(萬名)의 내방객(來訪客)이 있었고 신문(新聞)의 일면(一面)을 온통 할애(割愛)하여 대서특필(大書特筆)한 적도 수삼차(數三次) 있었다. 본관(本館)으로서는 이러한 행사(行事)를 통(通)하여 우리 선민(先民)에 대한 인식(認識)이 새로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상(以上) 바랄 것이 없다.

이러한 염원(念願)의 결실(結實)인지는 몰라도 금년(今年)들어서는 군고위층(軍高位層)에서 각기(各其) 사적(私的)으로 갖고 있던 귀중(貴重)한 유물(遺物)을 보내주는 예(例)가 많아지고 특(特)히 국민 중(國民中)에서 배성관씨(裵聖寬氏)라는 특지가(特志家)가 나타났다. 배씨(裵氏)는 80여세(餘歲)의 고령(高齡)인데 전란(戰亂)으로 인(因)하여 자녀(子女)를 모두 잃어버린 불우(不遇)한 처지(處地)인데도 배씨(裵氏)가 일제(日帝)시(時)부터 골동상(骨董商)을 경영(經營)한 인연(因緣)이 있어서 전생(全生)의 사업(事業)으로 우리 기념관(紀念館)에 승자총통(勝字銃筒) 신제총통(新製銃筒) 등 수천점(數千點)의 군사유물(軍事遺物)을 열심(熱心)히 수집(蒐集)하여 기증(寄贈)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자(筆者)가 평소(平素)에 느낀 소회(所懷)의 일단(一端)을 병기(倂記)함을 독자(讀者) 여러분은 양해(諒解)있으시기 바란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있는 문화재(文化財)라는 개념(槪念)이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욕망(慾望)이다. 현재(現在) 일반적(一般的)으로 관심(觀心)이 큰 서화(書畵) 자기(磁器) 서책(書冊) 조형미술품(造形美術品) 내지(乃至) 건축물(建築物)등에 대한 주목(注目)외(外)에 과거(過去)의 과학기구(科學器具)나 군사유물(軍事遺物)에 대한 관심(觀心)도 좀더 고조(高潮)되어 이런 것을 전문(專問)으로 하는 전람회(展覽會)가 열리고 이에 종사(從事)하는 연구가(硏究家)도 나타났으면 한다. 이미 외국(外國)사람의 우리 문화재(文化財)에 대한 관심(觀心)은 좀 다른 점(點)을 발견(發見)할 수 있다. 자기(磁器)등, 상기(上記) 각종(各種) 문화재(文化財)가 음(陰)으로 양(陽)으로 많이 해외(海外)에 흘러 나가고 있음은 물론(勿論)이지만 우리의 거의 관심(觀心)밖에 두고 있는 군사유물(軍事遺物)도 수(數) 없이 유출(流出)되고 있는 실정(實情)을 직시(直視)하여야 하겠다. 도검류(刀劍類)를 필두(筆頭)로 각종(各種)의 화기(火器) 군복(軍服) 전쟁화(戰爭畵)등 우수(優秀)한 신발견품(新發見品)은 거의 외인(外人)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로써 크게 각성(覺醒)해야할 사실(事實)일 것이며 또 국민(國民)의 무지(無知)로 말미암아 나날이 귀중(貴重)한 군사유물(軍事遺物)이

인멸(湮滅)되어가는 형편(形便)에 있다. 그러므로 군사유물(軍事遺物)등도 마땅히 보호문화재(保護文化財)의 테두리 속에 넣어서 그 보호(保護)에 철저(徹底)를 기(期)하는 동시(同時)에 국민(國民) 일반(一般)을 상대(相對)로 하는 적극적(積極的)인 계몽운동(啓蒙運動)이 필요(必要)하다고 믿는다.

끝으로 본관(本舘)에서 현재(現在) 보관(保管)하고 있는 수장품 통계(收藏品統計)를 소개(紹介)함으로서 두서(頭緖)없는 졸문(拙文)을 끝맺고자 한다. 수집품(蒐集品) 450여 점(餘點), 기증품(寄贈品) 100여 점(餘點), 대여품(貸與品) 100여 점(餘點)이고 이를 시대별(時代別)로 나누면 대략(大略) 선사(先史)와 삼국시대(三國時代) 80여 점(餘點), 이조시대(李朝時代) 130여점(餘點), 그리고 그 이후(以後)의 것이 근(近) 500점(點)이며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것은 전무(全無)하다. 그리고 종류별(種類別)에 있어서는 창군이래(創軍以來)의 군사유물(軍事遺物)과 6·25 당시에 로획(路獲)한 적장비(敵裝備)가 각각(各各) 200여 점(餘點)으로 전체(全體)의 절반(切半) 이상(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外)에 군(軍)의 각종(各種) 훈기장(勳記章) 및 마크 등 200여 점(餘點)의 참고품(參考品)을 갖고 있다. 붓을 놓음에 즈음하여 본(本) 기념관(紀念舘)이 위에서 소개(紹介)한 바와 같이 오늘날 미약(微弱)하나마 궤도(軌道)에 오른 활동(活動)을 전개(展開)하기에 이르렀음을 그 동안 국립박물관(國立博物舘)과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으로부터의 꾸준한 후원(後援)에 힘입은 바이니 이 자리를 빌어 심심(深甚)한 사의(謝儀)를 표(表)하여 마지않는다.

1964년 11월 11일 (一九六四年 一一月 一一日)

(필자(筆者) 육사기관고나장(陸士記舘舘長)